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예전에는 상상 혹은 영화 속에서만 있을 법한 첨단 문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메타버스), 광고에서 가상 인간이 등장해 춤을 추더니 어느덧 배우와 같은 전문분야까지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굳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필요 없이 그저 컴퓨터나 다른 기기만 사용해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안에서 가정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전국 가구 수 대비 31.7%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가톨릭신문, 제3273호)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를 통한 사회 관계망 형성으로 충분히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형태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걱정하는 것은 모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1년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교황께서 가정에 대한 특별한 해를 선포하신 목적은 “가정에 관한 복음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주는’ 기쁨임을 체험하게”(사랑의 기쁨, 200항) 하려는 것입니다. 즉, 비록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포된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의 기쁨을 피부로 체험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한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성가정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가정의 모범인 나자렛 가정도 예수님의 잉태 순간부터 베들레헴 구유 탄생과 이집트로 피신하신 일 등 평탄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탄하지 않은 여정을 피하려 얼굴을 돌리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한 어려움에 맞섰습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는 이렇게 가정에 대해 다시금 그 의미를 회복하고 묵상하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 가정이 ‘부부와 가정, 가정 교회의 기쁨 증언’”(사랑의 기쁨, 200항)을 하는 사목의 주체로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어두운 세계에 빛이”(사랑의 기쁨, 66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 27)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세례성사 (Baptismus)

세례성사는 견진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의 성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성사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0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예식문과 함께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 생명 그리고 씻음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를 깨끗이 씻어 없애 줍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의 용서, 교회와



2021년 5월 30일 난민 아동들을 위한 세례성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성모당)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옛사람은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곧 파스카-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 표인 인호(印號)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 은총을 누리게 할 책무가 있습니다. **금빛**

교황님 한 말씀

혼인한 부부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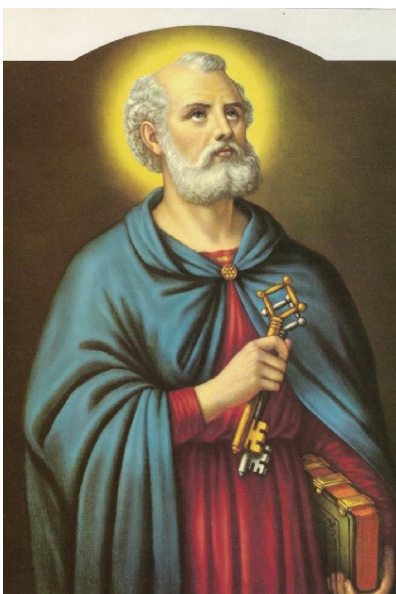
가정이 “사회의 기본 세포”(복음의 기쁨, 66항)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혼인은 “만남의 문화”(모든 형제들, 216항) 건설을 위한 계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된 인류애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가치들을 전수하고자 세대 간에 다리를 놓으라고 부름받습니다. **금빛**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2021-2022년)를 지내는 혼인한 부부들에게 보내는 서한 중



이달의 성인

성 베드로



베드로 사도는 갈릴래아 호수에 인접한 벳사이다 출신으로 시몬이라 불리며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나를 따라오너라”(마태 4,19; 마르 4,17)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는 치밀하지 못한 모습(마태 17,24-25; 마르 14,31 등)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신앙 고백(마태 16,16)에 기초하여 으뜸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17)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선포하였습니다.(사도 2,14-36; 3,11-15)

초기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로 가서 그곳의 초대 주교가 되었고, 64년경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은 그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금빛

이구동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어]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

인더 네임 어브 더 파더, 앤드 어브 더 썬, 앤드 어브 더 홀리 스피릿, 아멘

[일본어]

父と子と聖霊のみ名によって。アーメン。
치찌또코토세레노미나니웃테. 아 멘.

[중국어]

因父，及子，及圣神之名。阿门。
인푸, 지즈, 지성션즈밍. 아먼.

[베트남어]

Nhân danh Cha và Con và Thánh Thần Amen.
녀언 얀 차 바 폰 바 탄 터언 아멘.

찬미받으소서

지구의 또다른 이름 : 공동의 집



▶ 읽기

13항 :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데에 협력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공동의 집의 보호를 보장하려는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곳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공동의 집은 79억 명의 인류뿐만 아니라 많은 동식물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을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의 집'이라는 화두는 지구가 모두를 위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 생각하기

Q. 지구를 공동의 집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부르시며 지구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를 요청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 실천하기

QR코드 영상은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며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실천 해 봅시다. **금빛**



생태영성(2)

態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창세 1, 2)
하느님이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 마련하기 전(前)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꼴이 없음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세계였다는 것을 고스란히 알려주신 것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은 모든 것들이 꼴을 갖추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살아계신 하느님과 살아 있는 것들의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꼴을 통해 살아 있는 것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알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셨다.
꼴을 갖추고 있는 것들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꼴은 단순히 겉 모양뿐만 아니라 질서를 통해서도 주어졌다. 변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분명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으로써 서로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후대로 전해질 수 있게 만드셨다. 꼴을 갖춘 것들은 그렇게 살고, 떠나간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닮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단점은 '하느님처럼'이라는 탐욕일 것이다. 영원하신 하느님께 대한 저항은 생의 한계가 분명한 인간에게 파멸을 예고한다. 다른 곳에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이 사람이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은 자신의 처신을 망각할 때 일어난다. 자신의 분수를 알 때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습관은 인간을 털어낸 지구, 아니 어쩌면 인간으로 인해 꼴을 갖추지 못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창세 17, 9)

김호균 마르코 신부 (노동 사목부장)



몸의 신학 (1)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사랑

“육체는 영을 가두어 둔 감옥이다. 감옥에서의 탈출이 참된 구원을 가져온다.” 초대 교회 때 이단으로 규정된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이 사고방식, 즉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은 인간의 몸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한다. 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건강'을 이야기하며, 다이어트, 요가, 헬스, 건강보조식품 등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에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이제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소위 몸의 신격화 현상을 보게 된다.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극단적으로 왜곡된 두 가지 이해이다. 육신을 악하고 무의미한 것 아니면 육신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시선이다.
분명 하느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 하시며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든 사람,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창세 2,7)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79년 9월 5일부터 1984년 11월 28일까지 5년 동안 수요일 일반 알현의 가르침에서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이해인가를 알 수 있다.

석상희 요셉 신부 (교구 사목국 차장)



〈석상희 요셉 신부의 몸의 신학 칼럼은 1년간 연재됩니다〉

부부소통

사랑이 없이는 평화도 없다

새로움이 모여서 인생이다.

우리 부부는 결혼생활 32년째이다. 혼인생활은 제각각의 삶이 하나가 되어 둘의 이야기로 매일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다.

‘새롭다’란 말에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지만 그 새로움 안에 담아야 할 현상과 관계를 정립하는 것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혼자 살던 삶의 태도와 습관에 두 사람의 다른 성격과 취향이 덧붙여지면서 불협화음과 불편이 암초같이 파리를 튼다. 서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부부생활 안에서 새롭게 관계 맺는 것들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먼 미래에도 옆에 있는 배우자가 늘 새롭게 보일 것임을 믿기에 앞으로의 부부 여정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화해 없이는 평화도 없다.

우리 부부의 다툼은 아주 소소하고 지극히 자질구레한 것이다. 이를테면 냉장고의 음식이 오래된 것부터 안쪽으로 차곡차곡 재워져 있다는 것이나, 몇 날 며칠 탁자 위에 그대로인 채 치우지 않은 물건 때문이거나,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도 간섭으로 들릴 때 같이 소소한 것들이지만, 어떨 때에는 용인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움푹 파인 마음으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혹은 심하게 화를 내게도 된다.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일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하는 우울감에서 오는 것이다. 기실 원인과 결과는 자신이 풀어야 하는 것임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해와 화해의 대상은 배우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자신과 먼저 화해하고 평화를 찾아야 배우자와도 진정한 평화 안에 머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 했다. 아무런 대가나 바람 없이 먼저 주겠다는 마음은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부부생활의 지표이다. 우리 부부는 토요일과 주일이면 운동 삼아 가까운 공원이나 시장을 걸어서 가기도 한다. 가끔 걷기도 전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물과 조그만 간식이 든 가방을 서로 메겠다고 우기는 것이다. 배우자를 위해 불편과 힘들음을 감수하겠다는 배려에 부부의 삶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배우자의 조건 없는 지지와 응원은 힘들고 지치는 세상 속에서 큰 힘이 되고 살아갈 의미가 된다. 부부는 서로 속박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부부도 없다.



석재기 라우렌시오
허용화 나탈리아 부부
(ME 대구협의회)



한 줄 성경말씀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1코린 13,4)

기도시

가정을 위한 기도

자비로우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부족하기만 한 저희 가정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숨길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저희 가정에 베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제 것이 아닌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물을 기꺼이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삶의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어
그들이 저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둠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어
어둠이 닥치더라도 그 끝에는 빛이 있음을 알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자녀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고
물욕보다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저희 가족이 주님의 협조자로서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아멘.

권란영 이레나
(성토마스 성당)



부모와 자녀 관계(2)

자녀와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주님은 나의 작은 몸짓도 느끼시고 마음도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믿음은 우리가 소소하지만 자주,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쌓인 친밀함의 내용입니다. 이 친밀감은 내가 나답게 주장하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처럼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부모의 존재는 자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는 경험이 쌓여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녀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때 이런 시간을 마련할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자녀가 무엇에 흥미를 갖고 몰두하고 있는지, 그 몰두를 통해 자녀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필요(소속감, 효능감, 재미, 자유 등)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필요로 하는 것(need)을 알 때 비로소 자녀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순간 부모는 자녀와 함께할 내용과 시간을 기꺼이 수용하고 자녀에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자녀 간에 마음을 연결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 연결을 시작으로 자녀의 마음에 다가가는 다양한 길이 만들어지고 확장됩니다. 자녀의 나이, 발달수준, 특성, 관심사 같은 자녀의 상황과 입장을 인정하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공감적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자녀 간에 마음의 연결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부모

의 타당함이 대두됩니다. 자녀가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적 이해가 어려워 부모는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교육적인 방식으로 자녀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반응을 통제, 충고, 설득으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받을 내용이나 방식이 아니어서 사랑이 아닌 박탈감이나 결핍감으로 마음에 남깁니다.

부모-자녀 상담에서 자신의 자녀를 열정과 희생으로 사랑을 했다고 믿는 부모가 오히려 부모로부터 무시와 상처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녀에게 무너지면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종종 경험합니다.

“네 나이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부모의 입장과 특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그 타당한 이유와 입장은 반영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그리고 마음이 미성숙할수록 어쩔 수 없이 자녀 입장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지금 내 앞의 자녀는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나요? 자녀가 몰두하는 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마음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닌 자녀의 방식과 내용으로, 자녀가 원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합시다. 마음의 연결이 섬과 섬을 연결해 주는 다리처럼 시원하고 튼튼하게 열리도록 자녀와 즐겁고 충분한 시간을 갖길 응원합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편지글

혼인을 앞두고

부모님께
저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키워주신 세월이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제가 항상 어린아이 같고 마냥 철부지 아들로 보이시겠지요. 그런 철없던 제가 부모님 곁을 떠나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책임이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누구보다 저희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고, 또한 누구보다 행복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제가 하는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며 세상의 어려움도 배우고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 가족만 있던 가정에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많은 변화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모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헌신을 저 또한 자녀에게 가르치며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김호용 사도요한
(사동 성당)



라떼는

주일학교 개학



1979년 수성성당(제공 : 교구사료실)



2022년 수성성당(제공 : 수성성당)

노년의 영성

노년기, 마지막 찬스

사람의 인생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태어나서 사회인이 될 때까지, 제2기는 사회인이 된 후부터 은퇴할 때까지, 제3기는 은퇴한 후부터 타인에게 의존해야 할 때까지, 제4기는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시기를 말한다.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도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젊었을 때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살았더라도 노년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젊었을 적에 고생하며 살던 사람이 노년에 형편이 좋아져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쪽이 잘 산 인생일까? 인생이란 비록 노인이 아니라도 잘 살아야 한다.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 기쁘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런 노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래야 마침내 죽음도 두려움 없이 선선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2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선교사업 외에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은 고아원과 양로원 이었다. 물론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이웃사랑과 복음전파(마르 16,15)이다. 인생의 목적은 구원에 있고 구원은 궁극적으로 내세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수행

하는데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아동과 노인이었다. 당시에는 유아사망률이 높고 노년기가 짧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에게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아동과 노인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병고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유아사망률이 낮고 노년기가 길어져 옛날 방식으로 구원사업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하고 구원사업의 방법도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다. 한 때는 ‘9988 234(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를 잃고 3일째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임종하는 이들의 주보이신 성 요셉께 ‘9988’이야 바래지 않더라도 ‘234’는 꼭 빌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겐 임종준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루카 12,20)



박석돈 시몬
(정평 성당)

치매자가테스트

문	항	점수
1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생각이 안 난다.	
2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3	방금 놓아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4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를 모른다.	
5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6	대화의 맥을 자꾸 놓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핀잔을 듣는다.	
7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서툴러졌다.	
10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조작이 서툴러졌다.	
11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12	예전에 비해 방이나 주변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14	대중교통이 힘들거나 잘 알던 길도 낯설게 느껴진다.	
15	위생관념이 많이 떨어졌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점검

1. 점수체크

- 전혀 아니다 : 0점
- 약간 그렇다 : 1점
- 심하게 그렇다 : 2점

2. 체크결과

- 8점 이하 : 정상
- 8점 이상 : 경도인지장애

출처 : 한국판 치매 선별질문지 : KDSQ-C

산책로

대구 달성습지 · 대명유수지



찾아가시는 길

자 가 용 네비게이션 “달성습지 다목적광장 주차장”
대중교통 버 스 : 급행 7번, 대명유수지 정류장에 정차
 지하철 : 2호선 계명대역 3번 출구에서 급행 7번 버스로 환승

‘코로나 19’로 유난히 더 추웠던 겨울, 그 시간을 지나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벼운 산책로를 생각하며 나란히 붙어있는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명유수지는 생태탐방로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은 갈대밭으로 유명한데, 코앞에서 갈대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달성습지는 주차장에서 걷기를 시작하면 독길을 올라 유수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장점은 독길을 오르내리는 것 외에는 경사도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걷기에 좋은 다양한 길로 이루어진 달성습지와 갈대밭으로 유명한 대명유수지 생태탐방로를 한번 걸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고, 가족들이 많이 찾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사색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에서, 지친 삶 속에서 여유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빛**

독자투고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한티순교성지에서 진행된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1박 2일)’을 다녀온 후 늙어가면서의 감정이 새로워짐을 느꼈다. 예전에 나보다 서너 살 많은 형님이 “노인이 되니 좋다.”고 했다. 병원에 가면 치료비도 적고,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하고... 자랑인 듯 말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나도 실버카드를 받는 날이 왔다. 그런데 정작 카드를 받고 나니 ‘나라에서 인정하는 노인이 된 건가?’ 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좋다는 마음보다 현명한 노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밀려왔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는 말이 생각났다. 친구들이랑 나들이 갈 때 송편과 닭튀김을 사 갔더니 모두 좋아하며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지갑을 자주 열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외출이나 모임 등 많은 것이 제한되었고, 와중에 친하게 지내는 형님과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다. 답답한 마음에 피정이라도 다녀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보에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안내가 된 것을 보았다. 이전에는 “노인”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남편과 함께 피정 신청을 했다.

코로나 때문인지 피정에 참석한 교우들이 많지 않았는데 신부님, 봉사자님들의 강의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 기도 생활, 묵주기도, 성체조배, 묵상에 대해 도움 되는 말씀도 해 주시고 실제로 성체조배와 묵상도 했다. 내가 너무나 갈망한 피정이라 그랬는지 이때까지 했던 어느 피정보다 좋았다. 1박 2일 피정은 노인기에 들어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이가 많다고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베풀려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느님과 가까이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멋진 추억을 남기고 싶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아껴쓰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기도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가까이하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 얼마나 행복하리오?” (토빗 13,16)

추영숙 데레사
(경산 중방 성당)



계절별미

5월의 레시피

냉이조갯살 무침

간단하고, 건강한 제철 음식으로 밥상을 준비해보세요

재료준비 데친냉이2컵, 조갯살 1/2컵, 된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작은술, 다진마늘 1/2작은술



냉이는 잘 다듬어 끓는 물에 데쳐 4cm 길이로 썰어둡니다.



조갯살도 손질하여 끓는 물에 데쳐 크게 다져 참기름 1/2큰술로 살짝 볶습니다.



데친 냉이와 함께 데친 조갯살을 된장,참기름, 마늘, 깨소금으로 무치면, 끝!

냉이 효능



냉이는 봄에 나는 야채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고, 칼슘과 철분의 함량이 가장 높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특히 냉이 잎은 비타민A가 많으며, 봄철의 노곤함과 피로회복에 좋은 야채입니다.

공지사항

가정복음화국 행사소개

(6월-8월)

행사명	세계가정대회 주제가대회	카나혼인강좌	임신부 축복 미사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일시	06.01. - 06.10. (신청기간)	06.19. 07.17. 08.21.	06.10. 07.08. 08.12.	08.31.- 09.01.
장소	비대면	교구청 다동 대강당	성모당	한티피정의 집
대상	가족 또는 단체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부	65세 이상 남·여
비고		월 1회 (매월 셋째 주일)	월 1회 (매월 둘째 금요일)	연 6회

신청 및 문의 :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3114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대건관 1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 조환길 주간 : 박상용 편집 :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Fax. 053-250-3078
E-mail. dgfamily@dgca.or.kr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국내성지순례 (2)

은이성지 김가항 성당



은이(隱里 숨어 있는 동네) 성지 김가항 성당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으며 한국 최초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신품성사를 받은 중국 상하이 소재 김가항 성당을 기억하기 위하여 2016년에 철거 자재 등을 이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은이성지는 1836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가 세례성사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된 곳으로 사제 성소의 열매를 맺은 요람지이며, 1845년 페레올 주교로부터 신품성사를 받고 한국 최초의 신부가 되어 귀국하여 첫 사목활동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귀국 후 서울, 용인 일대에 사목활동을 할 때, 병오박해가 시작되어 1846년 부활 미사를 마지막으로 체포되었으며, 사목활동을 1년도 못 하시고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25세의 나이로 군문 효수 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2021년 유네스코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이곳에는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념관도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삶에 지치거나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이곳을 찾아 김대건 신부님의 전구로 치유의 순례가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기자



46호 가정미션 : 가족끼리 교구 성모당을 방문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결혼적령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2.05.15. - 2022.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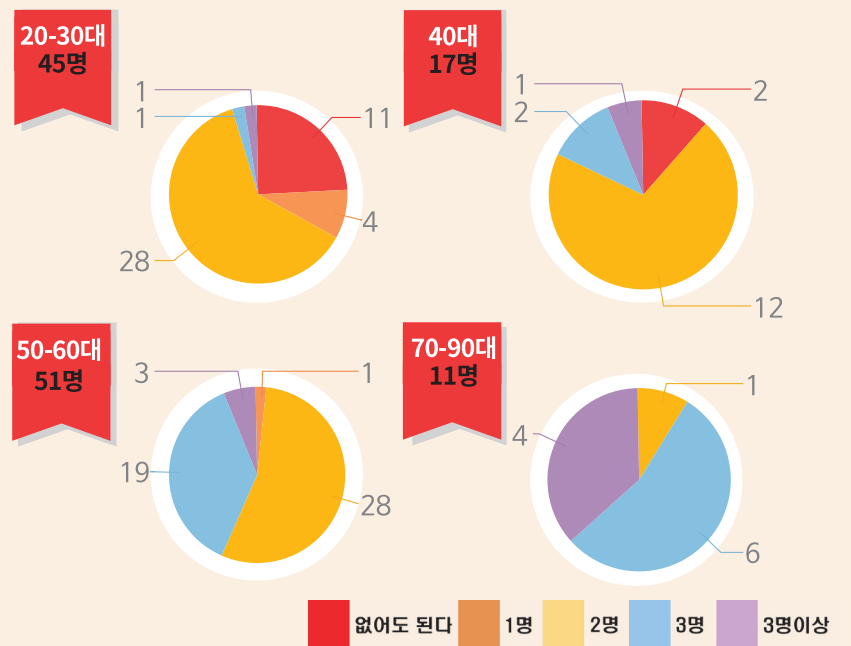
-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46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1. 성별 및 연령대 : 남 / 여 (세)
2. 결혼적령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명)

지난(45)호 설문 결과

주제 :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명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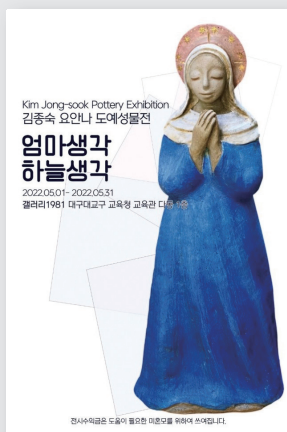
행사 소개

도예성물전 "엄마생각 하늘생각"

도예예술가 김종숙(요안나) 자매의 도예성물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수익금은 미혼모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장 소 갤러리1981 (교구청 다동 교육관)

전시기간 2022.05.01. - 2022.05.31.



찬미받으소서 7주년 기념 "친환경 생활전"

샬트르 성바오로회 수녀님들의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용품소개 및 판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 소 예담갤러리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관구 백합식품 2층)

전시기간 2022.05.23. - 2022.06.17.

